



해외에너지 정책동향

출처 : 에너지경제연구원



EC, '14년 유럽 에너지시장 통합 완료 위해 회원국 노력 촉구

- 유럽집행위원회는 11월 15일 발간한 보고서(Making the internal energy market work)에서 EU가 2014년까지 계획한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면서, EU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함.
 - 이 보고서에서 EC는 27개 회원국이 EU차원의 에너지 법률인 '제3차 에너지패키지'의 시행 마감일이 2011년 3월이었지만, 아직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고 밝힘.
 - * 제3차 에너지패키지 : EU의 역내 에너지시장(특히 가스 및 전기)의 통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,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.
 - 유럽 전력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협회인 Eurelectric은 EU가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의 연기도 허가하면 안된다고 언급하며,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 제한과 같은 규제에 에너지시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.
- 2014년까지 유럽 에너지시장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서, EC는 회원국들의 조속한 에너지패키지 적용,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에너지시장 설계, 소비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정리함.

(European Commission; Bloomberg, 2012.11.15; ENDS Europe, 2012.11.16)

EU, 르완다 에너지부문에 자금지원 약속

- EU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르완다 에너지산업에 자금지원을 약속했다고, 르완다에서 열린 ACP-EU Energy Facility 포럼에서 르완다주재 EU 대표부 Micheal Arrion 대사가 11월 21일 밝힘.
 - * ACP-EU Energy Facility : 아프리카, 카리비해와 태평양 지역(Africa, Caribbean, Pacific)의 저소득 국가들

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EU기관임.

- Michael Arrion 대사에 따르면 EU의 지원 금액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, 정부 차원의 회담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며, 르완다의 에너지믹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.
- EU는 그동안 르완다에 도로재건, 농작물 생산증대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개발과 사법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했으나, '2013 르완다 경제개발·빈곤퇴치 전략(EDPRS 11)'이 발표된 후 정부 간 협상과 토론을 거쳐 에너지부문으로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힘.
- 르완다 에너지·수자원부 Emma Francoise Isumbingabo 장관은 이 포럼에서 르완다의 에너지현황에 대해 언급함.
 - 르완다 정부의 불안정하고 비싼 전기요금에 농촌지역 시민들의 생활을 악화시키고, 르완다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힘.
 - 르완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력 보급률을 70%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서 수력, 메탄가스, 지열 등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여 발전용량을 1,000MW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.

(All Africa; The News Times, 2012.11.22)

영국, '저탄소 경제' 에너지법안 공개

- 영국 Edwards Davey 에너지·기후변화부 장관은 저탄소 경제성장을 추축으로 한 에너지법안(Energy Bill)의 주요 내용을 11월 23일 발표함.
 - 새 에너지법안은 영국의 에너지시장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줌으로써, 노후된 발전시설을 대체할 새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1,1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금 유치를 기대함.
 - 또한,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,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(CCS)에 76억 파운드를 투자할



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- 그러나 2030 탈탄소 목표(2030 Decarbonisation Target)는 이번 법안에서 다루지않고, 2016년에 있을 제5차 영국 탄소예산회의에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제안을 듣고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.

[Energy Efficiency; ENDS Europe, 2012.11.23; BBC;DECC, 2012.11.29]

중국, '12.5계획' 기간 자원재활용을 통해 11.55억tce 에너지절약 예상

- 중국은 '12.5계획(2011~2015년)' 기간에 도시광산업 개발을 통해 약 11억5,500만tce의 에너지를 절약하고, 이산화탄소를 7억2,000만 톤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함.
- 중국 재생자원회수이용협회는 중국에서 폐기되는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, 향후 몇 년간 최소 연간 1,500만개의 가전제품과 1,000만개의 휴대전화기 폐기될 것이며, 2020년 전자제품의 연간 폐기량은 1억3,700만개에 달할 것으로 12월 3일 전망함.
- 또한, 자동차 폐기량은 향후 몇 년간 400~600만대에 달할것이며, 2020년에는 연간 폐기량이 1,400만대를 넘어설것으로 예상함.
 - * 도시광산업은 폐기되는 휴대전화, 가전제품, 자동차 등에서 금,은,희유금속 등의 자원을 추출하는 자원재활용 산업임.
- 중국은 현재 29개의 국가 도시광산 시범단지를 건설하였고, '12.5계획' 기간에 100개의 자원종합 이용 시범단지과 50개의 도시광산 시범단지를 건설할 계획임.
 - * 중국 정부는 자원종합이용 시범단지 건설을 통해 산업폐기물, 광산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함. 현재 1차적으로 24개의 자원종합이용 시범단지를 조성하여, 2015년 고품폐기물의 재활용 능력과 총생산 규모를 각각 5억5,000만 톤과 3,000억 위안으로 증가

시킬 계획임.

- 한편, '11.5계획' 기간에 중국은 도시광산업을 통해 6억 3,000만톤의 자원을 재활용했다고 중국재생자원회수이용협회는 발표함.

[人民網, 2012.12.4]

일본, 올 겨울 절전 시작

- 일본 정부가 올겨울 전력수급대책 중 하나로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국의 전력회사 관내에 요청한 절전이 12월 3일부터 시작됨.
 - 절전생활의 정착으로 일정한 예비 공급력을 확보하였으며, 홋카이도 이외의 지역은 수치지목표가 없는 절전을 요청하고, 홋카이도는 2010년 대비 7%이상의 절전이 12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임.
 - 홋카이도전력 관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올겨울 절전기간은 12월 3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말연시(12월29일~1월4일)는 제외됨.
 - 홋카이도전력 관내는 연말연시를 제외한 12월 10일부터 2013년 3월 8일까지의 평일에 절전을 시행하며, 공급 예비율이 3%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 정부가 하루 전날 수급경보를 발동시킬 예정임.
- 일본 정부는 각 전력회사의 예비 공급력이 2013년 2월 시점에 3%이상 웃돌 것으로 예측함.

[東京新聞; 日本經濟新聞, 2012.12.3]